

2010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A Look at the 2010 Health and Welfare Budget Bill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년 보건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총 약81조로 전체 국가 자원배분 중 가장 큰 수준인 약 2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매우 광범위한 주택 및 노동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출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규모는 기타 국방, 경제 등의 부문에 비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2010년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정부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통하여 보건복지 부문 세부영역별 예산(안)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분야 자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2010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6~4.2%로 예측되어,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2009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년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예산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도 재정 총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1.1% 감소한 287.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예산수입은 2.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재정지출은 경제가 회복국면에 이룸에 따라 2009년 추경 예산 수준보다는 3.4%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2010년 경제전망

발표기관	발표일자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09.07.10	3.6
IMF	09.10.01	3.6
KDI	09.09.08	4.2
삼성경제연구소	09.09.16	3.9
LG경제연구소	09.09.21	4.2
현대경제연구소	09.09.14	3.9
한국경제연구원	09.10.08	3.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책대 정책과 세원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09년보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되기 시작한 국가채무수준에 대한 우려와 균형재정기조로의 복귀라는

표 2. 2010년도 재정규모 전망

(단위: 조원, %)

	09년 본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안	본예산 증감율	추경예산 증감율
총수입	291.0	279.8	287.8	Δ1.1	2.9
- 예산	196.9	185.7	191.9	Δ2.6	3.4
- 기금	94.1	94.1	95.9	1.9	2
총지출 ¹⁾	284.5	301.8	291.8	2.5	Δ3.4
- 예산	204.1	210.3	202.8	Δ0.6	Δ3.6
- 기금	80.4	91.5	89.0	10.6	Δ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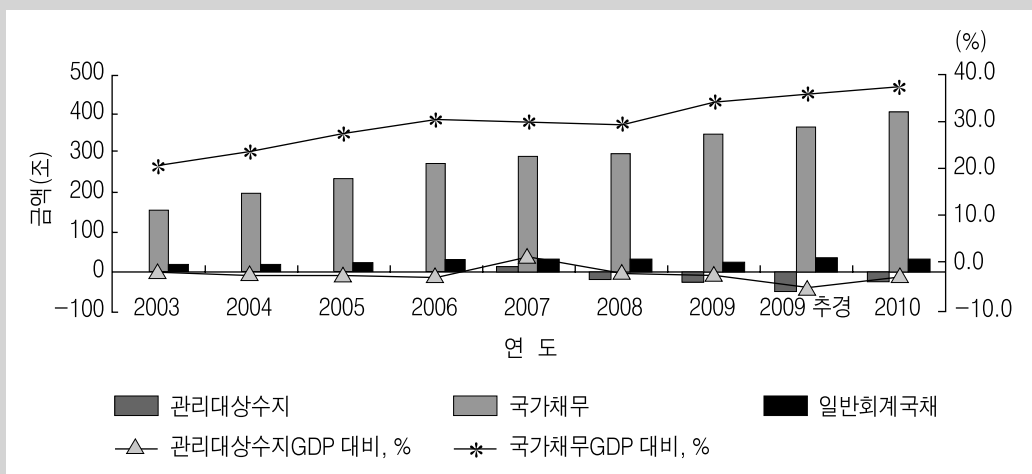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차원에서 2013~2014년경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0년 GDP대비 36.9% 수준으로 2009년 추경예산 대비 41.1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중기적으로 GDP대비 40%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다.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기금을 포함한 정부 총지출은 보건복지부문이 81조 원

(27.76%), 일반공공행정이 49.5조원(17%), 교육 부문이 37.8조원(12.95%), 국방이 29.6조원(10.14%)으로 배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문 총지출(안)은 전년 본예산대비 6.4조(8.6%) 증가하여 총지출 항목 중 규모로서는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문 총지출은 주택 및 노동을 모두 합하였으나, 건강

그림 1. 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 추이(2003~2010)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보험급여 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 부문 지출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전년 6조 2,111억원에서 8조 8,348억

원으로 2조 6,237억원 증가하였고,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 7조 6,745억원에서 9조 780억원으로 1조 4,035억원 증가하였

다. 이외에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보험지원 등 법정지출의 자연상승분 등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표 3. 분야별 자원배분

구분	'09 ¹⁾	'10안	증가율
1. R&D	12.30 (4.32%)	13.60 (4.66%)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0 (5.69%)	14.40 (4.93%)	△10.9 ²⁾
3. SOC	24.70 (8.68%)	24.80 (8.50%)	0.3
4. 농림수산식품	16.90 (5.94%)	17.20 (5.89%)	2.1
5. 보건·복지	74.60 (26.22%)	81.00 (27.76%)	8.6
6. 교육	38.20 (13.43%)	37.80 (12.95%)	△1.2 ³⁾
7. 문화·체육·관광	3.50 (1.23%)	3.70 (1.27%)	7.8
8. 환경	5.10 (1.79%)	5.40 (1.85%)	5.1
9. 국방(일반회계)	28.50 (10.02%)	29.60 (10.14%)	3.8
10. 통일·외교	3.00 (1.05%)	3.40 (1.17%)	14.7
11. 공공질서·안전	12.30 (4.32%)	12.90 (4.42%)	4.3
12. 일반공공행정	48.60 (17.08%)	49.50 (16.96%)	1.8
총지출	284.50	291.80	2.5

주: 1) 본예산

2)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제외시 6.4% 증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6.4%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2010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1) 2010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총 31조 645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조 7,023억원(9.5%) 증가하였다.¹⁾ 예산은 일반회계가 19조 4,045억원, 특별회계가 2,810억원으로 총 19조 4,0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11조 6,600억이 편성되었다. 예산은 2009년 본예산대비 9,690억원(5.3%) 증가하였고, 추경예산대비 3,055억원(1.5%) 감소하였다. 예산의 증가는 대부분의 기능별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책

1)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조 4,278억원(4.8%) 증가하였다.

에 포함되는 보육부문,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인부문,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부문, 건강보험 지원 부문(1조 4,183억원, 3.4%)이 대표적인 예산증가가 이루어진 부문이다. '09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문은 아동 및 청소년 부문, 가족 및 여성부문이며, 보건부문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 부문과 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부문 등이나, 이 중에는 실질적인 예산감소가 일어났다고 보다는 사업이 타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기금의 규모는 '09년 계획대비 1조 7,333억원(17.5%) 증가한 11조 6,6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1조 4,814억원(18.1%) 증가하여 전체 기금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급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연금의 성숙단계

에 이르기 전까지 급여지출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현상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09년 대비 1,008억원(6.2%) 증가한 1조 7,39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지출 상승의 내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은 약 368억원(3.6%) 증가한 1조 631억원,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약 244억원(133.7%) 증가한 42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09년 대비 1,350억원(345.0%) 증가한 1,741억원이나, 이는 사업비의 증가보다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이관된 사업으로 인한 급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육성기금은 '09년 대비 162억원(21.4%) 증가한 92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 개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분야별 세출예산안

표 4.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단위: 억원, %)

구분	'09년 예산	'09년 추경예산	'10 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증감	증감율
총지출	283,622	296,367	310,645	27,023	9.5	14,278	4.8
• 예산	184,355	197,100	194,045	9,690	5.3	△3,055	△1.5
일반회계	180,155	192,706	191,235	11,080	6.2	△1,471	△0.8
특별회계	4,200	4,394	2,810	△1,390	△33.1	△1,584	△36.0
• 기금	99,267	99,267	116,600	17,333	17.5	17,333	17.5
건강증진기금	16,387	16,387	17,394	1,007	6.1	1,007	6.1
국민연금기금	81,729	81,729	96,543	14,814	18.1	14,814	18.1
응급의료기금	391	391	1,741	1,350	345.3	1,350	345.3
청소년육성기금	760	760	922	162	21.3	162	21.4

자료: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을 살펴보면, 기초 생활보장부문이 약 7조 3천억원, 노인, 장애인 등 지원이 약 4조 3천억원, 건강보험이 약 4조 3천억원, 보육이 약 2조 2천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인분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분은 약 3조 4천억원이며, 장애인은 약 6천5백

억원, 아동 및 청소년은 약 1천 6백억원으로 계획되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가장 큰 부문은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약 3조 2천원), 노인, 장애인 등 지원부문(약 2조 8천억원), 건강보험(약 4조 3천억원) 순이다.

표 5. 2010년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09년 당초예산	09년 추경예산	10년 예산안	본예산대비 증감액	추경예산대비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총계	18,605,936	19,899,843	19,737,416	1,131,480	6.1	△162,427	△0.8
총지출	18,435,501	19,709,983	19,404,514	969,013	5.3	△305,469	△1.5
사회복지	13,416,188 (72.7%)	14,568,392 (73.9%)	14,231,321 (73.3%)	815,133	6.1	△337,071	△2.3
-기초생활보장	7,135,490 (38.7%)	7,973,099 (40.4%)	7,292,933 (37.5%)	157,443	2.2	△680,166	△8.5
-노인·장애인 등 지원	4,073,527 (22%)	4,124,210 (20.9%)	4,340,616 (22.3%)	267,089	6.6	216,406	5.2
-공적연금	280 (0.001%)	280 (0.001%)	395 (0.002%)	115	41.1	115	41.1
-보육·가족 및 여성	1,830,041 (9.92%)	1,838,316 (9.3%)	2,154,481 (11.1%)	324,440	17.7	316,165	17.2
-사회복지일반	376,850 (2.04%)	632,487 (3.2%)	442,896 (2.2%)	66,046	17.5	△189,591	△30.0
보건	5,019,313 (27.2%)	5,141,591 (26%)	5,173,193 (26.6%)	153,880	3.1	31,602	0.6
-보건의료	841,593 (4.5%)	963,871 (4.8%)	853,642 (4.3%)	12,049	1.4	△110,229	△11.4
-건강보험	4,177,720 (22.6%)	4,177,720 (21.1%)	4,319,551 (22.2%)	141,831	3.4	141,831	3.4
내부거래	170,435	189,860	332,902	162,467	95.3	143,042	75.3
- 회계,계정간거래	98,413	117,838	118,910	20,497	20.8	1,072	0.9
- 기금 전 출금	72,022	72,022	213,992	141,970	197.1	141,970	197.1

자료: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3. 보건복지가족부 부문별 예산안 분석

1)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보장부문은 '09년 본예산(7.1조원) 대비 1,574억원(2%) 증가한 7조 2,92억원이다.²⁾ 예산증가가 일어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의료급여 등이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09년 본예산 대비 1,353억원(41.2%) 증가한 4,637억원으로 편성되었다.³⁾ 자활대책사업 중 눈에 띄는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 탈수급 지원 방안인 희망키움통장 사업(249억원) 등의 신규사업이 도입되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8만 가구에 2~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월 30만원 수준(2~3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자활대책사업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142.5억원)는 원래 복권기금 사업이었던 것이 이전된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료급여는 전년 본예산(3.4조원) 대비 815억원(2.4%) 증가하였고, 추경예산(3.5조원)에 대비하여 보면 104억원(0.3%) 감소하였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추경예산 1,738천명에서 1,745천명으로 소폭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대상자의 확대 외에도 기본진료비 지원대상 증가, 기본진료비, 인건비의 상승, 암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보장성 강화 등 예산증가 요인이 있으나 재정절감분이 3,039억원으로 추경대비 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부 양곡할인 지원은 '09년 추경예산 198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농·식품부(양곡관리 특별회계)사업이 복지부의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931억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증가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예산의 감소와 순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들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추경에 도입되었거나 확대된 사업들의 종료 및 축소가 특징적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사업('09년 903억원)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어서, '10년 예산에서는 순감되었다. 한시생계급여(4,181억원)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639억원)도 '09 추경에서 경제위기하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순감되었다. 추경시 확대된 긴급복지,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종료와 축소로 인한 추경대비 '10년 예산 감소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대비 저소득층 생계보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 및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사업들의 경우도 '09본 예산 대비 대상자수는 증가하거나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09년 본예산에서는 42,000건이었으나 '09 추경예산에서는 91,000건으로 확대

2) '09년 추경예산(7.4조원) 대비는 680,166억원(8.5%) 감소하였다.

3) '09년 추경예산(3,944억원) 대비는 692억원(17.6%) 증가하였다.

표 6.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7,135,490	7,973,099	7,292,933	157,443 (2%)	△337,071 (△2.3%)
기초생활급여		3,336,886	3,432,686	3,271,960	△64,926 (△1.9%)	△680,166 (△8.5%)
	생계급여	2,446,001	2,519,251	2,449,192	3,191 (0.13%)	△70,059 (△2.8%)
	주거급여	654,880	673,942	562,824	△92,056 (△14.1%)	△111,118 (△16.5%)
	교육급여	110,475	110,475	120,406	9,931 (9%)	9,931 (9%)
	해산·장제급여	13,475	13,475	15,350	1,875 (14%)	1,875 (14%)
	정부양곡할인지원	16,343	19,831	111,203	94,860 (580%)	91,372 (46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신규)	-	-	10,804	10,804 (순증)	10,804 (순증)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90,291	90,291	-	△90,291 (순감)	△90,291 (순감)
	기초생활보장관리	5,421	5,421	631	△4,790 (△88.4%)	△4,790 (△88.4%)
	기초보장관리단 확대운영(신규)	-	-	1,550	1,550 (순증)	1,550 (순증)
의료급여		3,418,631	3,510,631	3,500,225	81,594 (2.4%)	△10,406 (△0.3%)
긴급복지		51,532	153,312	52,912	1,380 (2.7%)	△100,400 (△65.5%)
자활지원		328,441	394,470	463,756	135,315 (41.2%)	69,286 (17.6%)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	63,900	4,080	4,080 (순증)	△59,820 (△93.6%)
한시생계구호		-	418,100	-	-	- (순감)

되었다. '10예산안에서는 54,000건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경제위기시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0년은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09년 본예산(3.3조원) 대비 649억원(1.9%) 감소하였다. 기초생활급여의 감소를 살펴보면 주거급여의 감소가 눈에 띈다. 주거급여는 '09년 본예산을 대비하여도 920억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추경수준인 1,546천명으로 유지되어 전년 본예산(1,500천명)을 대비하여 보면 지원대상이 증가하였다. 다만 '10년 안에서는 1인당 급여액에서 가구별 급여액으로 예산편성 방식이 변경되었고, 전달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절감분(307억)이 고려되어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생계급여는 본예산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추경대비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추경수준인 1,632천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09 본예산 지원 수준인 1,586천명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 노인복지

'10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09년 본예산(3.1조원) 대비 2,782억원(9%) 증가한 3조 4,039억원이다.⁴⁾ 노인복지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부문 사업의 예산은 증가한 반면,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은 '09년

본예산(973억원) 대비 447억원(45.9%) 감소하여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부문 예산의 증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포함한 노인복지지원(2,538억원, 10%)과 노인돌봄서비스(368억원, 71%),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사업(584억원, 18%)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2,538억원이 증가된 2조 7,236억원으로 전체 노인복지부문 예산증가액의 8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증가는 법정지출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으로, 노인수 증가로 인하여 대상자가 363만명에서 '10년에는 371만명으로 확대되고 연금액이 8만 8천원에서 9만 1천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예산은 '09년 본예산(3,283억원) 대비 584억원(18%) 증가하였다. 이는 대상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이 전년 대비 3,303억원(62.3%)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대상자는 18만 명에서 '10년 32.5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09년 대비 367억원(71%)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원 확충과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와 교육비 등 운영비의 증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자 증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비 사업에 기인한다.

3) 장애인복지

'10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09년 본예산

4) '09년 추경예산(3.15조원) 대비 2,505억원(7.9%) 증가하였다.

표 7. 노인복지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3,125,696	3,153,416	3,403,957	278,261 (9%)	250,541 (7.9%)
노인생활안정		2,667,770	2,695,490	2,964,431	296,661 (11%)	268,941 (9.9%)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지원	2,470,008	2,470,008	2,723,889	253,881 (10%)	253,881 (10%)
	사할린한인지원	8,960	8,960	6,273	△2,687 (△30%)	△2,687 (△30%)
	노인관련기관지원	5,253	5,253	5,041	△212 (△4.0%)	△212 (△4.0%)
	노인돌봄서비스	52,141	52,141	88,888	36,747 (71%)	36,747 (71%)
	노인일자리지원	131,408	159,128	140,340	8,932 (7%)	△18,788 (△11.8%)
노인의료보장		425,789	425,789	439,526	13,737 (3%)	13,737 (3%)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328,399	328,399	386,884	58,485 (18%)	58,485 (18%)
	노인요양시설확충	97,390	97,390	52,642	△44,748 (△45.9%)	△44,748 (△45.9%)
장사시설확충		32,137	32,137	30,340	△1,797 (△5.6%)	△1,797 (△5.6%)
장사시설		32,137	32,137	30,340	△1,797 (△5.6%)	△1,797 (△5.6%)

(5,463억원) 대비 1,011억원(19%) 증가한 6,745 억원이다.⁵⁾ 장애인 부문 역시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포함한 저소

특장애인지원(131억원, 177%)과 장애수당(478 억원, 15%), 장애인사회활동지원(427억원, 30%) 증가에 기인한다. 장애수당 사업은 '09년 본예산(3,3132억원) 대비 478억원(15%) 증가하였다. 장애수당지급의 예산이 삭감(1,078억원)

5) '09년 추경예산(5,565억원) 대비 910억원(16.3%) 증가하였다.

되었으나, '10년 7월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연금의 신규도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운영비가 증가하였다. '10년 신규도입 될 예정인 중증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상 소득계층 33만 명으로, 지원규모는 1,474억원으로 계획되어있다. 지원액은 개인당 월 15/14/9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이

다. 한편,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6월까지의 장애수당의 예산은 1,09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확충은 전년 본예산(404억원) 대비 92억원(22.9%)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101억원, 36.4%)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2억원, 18.3%)의 예산 삭감으로 시설

표 8.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안세사업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546,341	556,539	647,540	101,199 (19%)	91,001 (16.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529,307	539,505	630,376	101,069 (19%)	90,381 (16.8%)
	장애수당	313,246	313,246	361,061	47,815 (15%)	47,815 (15%)
	저소득장애인지원	7,454	7,454	20,642	13,188 (177%)	13,188 (177%)
	장애인자립자금용자	2,457	2,457	3,239	782 (32%)	782 (32%)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42,943	144,943	185,657	42,714 (30%)	40,714 (28%)
	장애인복지시설확충	40,423	46,423	31,159	△9,264 (△22.9%)	△15,264 (△32.9%)
	장애인단체 지원	9,131	9,131	10,564	1,433 (16%)	1,433 (16%)
	장애인일자리지원	13,653	15,851	18,054	4,401 (32%)	2,203 (14%)
	장애인재활지원	17,034	17,034	17,164	130 (1%)	130 (1%)
	장애인직업재활지원	370	370	500	130 (35%)	130 (3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6,664	16,664	16,664	-	-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다.

4) 아동 및 청소년복지

아동 및 청소년 예산은 '09년 본예산(1,823억원) 대비 204억원(43.6%) 감소한 1,619억원으로

축정되었다.⁶⁾ 그러나 아동청소년정책부본 예산 삭감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3억), 국가 간 청소년 교류사업(10억) 등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이관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부문에서도 시설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표 9. 아동 및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182,389	193,279	161,895	△20,494 (△43.6%)	△31,384 (△16.2%)
	요보호아동보육육성	77,525	78,625	33,674	△43,851 (△56.6%)	△44,951 (△57.2%)
	아동시설 지원	55,228	56,328	11,348	△43,880 (△79.5%)	△44,980 (△79.9%)
	학대·실종아동보호지원	5,091	5,091	4,729	△362 (△7.1%)	△362 (△7.1%)
	가정입양지원	9,280	9,280	9,307	27 (0.3%)	27 (0.3%)
	가정위탁 지원	1,356	1,356	1,720	364 (26.8%)	364 (26.8%)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6,570	6,570	6,570	-	-
	아동복지지원	96,607	106,397	122,723	26,116 (27%)	16,326 (15.3%)
	방과 후 활동지원	74,062	83,852	92,614	18,552 (25%)	8,762 (10.4%)
	드림스타트지원	22,545	22,545	30,109	7,564 (33.6%)	7,564 (33.6%)
	아동청소년정책	5,853	5,853	3,818	△2,035 (△34.8%)	△2,035 (△34.8%)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	2,404	2,404	1,680	△724 (△30.1%)	△724 (△30.1%)

6) '09년 추경예산(1,932억원) 대비 313억원(16.2%)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아동복지예산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시설 지원예산은 전년 본예산(552억원) 대비 438억원(56.6%) 감소하였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421억원)이 종료되었고, 아동시설 확충사업이 전년대본예산(66억원) 대비 38억원(50.8%) 감소하였다. 아동복지지원은 전년 본예산(966억원) 대비 261억원(27%) 증가하였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와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활동지원의 증축된데 기인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은 '09년 75개소에 대하여 2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0년에는 100개소에 대하여 30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5) 공적연금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전년도 국민연금 급여지출보다 1조 4,035억 원 증가한 9조 780억원으로, 이는 주로 연금 급여 수급자수 및 평균 급여액 수준이 증가한데에 기인한다. 특히 2010년에는 특례노령연금제도의 시행만으로 인해 반환일시금 수급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09년에는 148천명이었으나 '10년에는 289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급여지출이 2008년 처음 발생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급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대부분의 급여가 연금형태로 지급되므로 국민연금 급

여지출은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그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고지원 국민연금제도운영비는 '09년 대비 1억1500만원 증가한 3억9500만원으로 계획되었다.

6) 보육

보육부문 예산은 '09년 본예산(1조 7,104억 원) 대비 3,771억원(22.1%)증가한 2조 876억원으로, 예산의 증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증가

표 10. 국민연금 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 급여지출	'09	'10	증가(B-A)
노령연금 급여지급	5,863,405	6,869,907	1,006,502
반환일시금 지급	489,600	784,374	294,774
유족연금 급여지급	907,600	986,748	79,148
장애연금 급여지급	413,900	437,000	23,100
소계	7,674,505	9,078,029	1,403,524
일반회계			
국민연금제도운영	280	395	115 (41.1%)
소계	280	395	115 (41.1%)
내부거래 (국민연금기금 전출금)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19,194	10,000	△9,194 (△47.9%)
출산크레딧 급여	2	2	0 (0%)
신용회복대여사업 이차보전	562	177	△385 (△68.5%)
소계	19,758	10,179	△9,579 (△48.5%)

가 주된 요인이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전년(1조 2,821억원)대비 3,500억원(27.3%)증가한 1조 6,322억원이다. 이는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와 다자녀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지원을 강화에 기인한다.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료 지원 아동은 '09년에는 813,000명이었던 것이 '10년에는 870,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가 지원(130,000명)된다. 보육료 정부 단가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50% 이하 만 0~4세아, 소득하위 70%이하의 만5세아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무상보육지원 이외에 '10년에는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09년에는 610,000명 이었던 것이 '10년에는 761,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1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0~4세아 차등보육료는 1조 3,68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상자도 기준단가와 기본보육료가 지원되는 소득하위 70%대상자가 657,000에서 724,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본보육료만 지원되는 소득 70%초과 대상자도 83,000명에서 13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만5세아 보육료는 1조 2,175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대상자도 140,000명에서 122,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장애아보육료도 463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대상자도 16,000천명에서 15,60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두자녀 보육료 또한 85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대상자도 110,000명

에서 103,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맞벌이 가구 보육료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18,000명에 대하여 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09년부터 시행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전년(323억원)대비 332억원(102.7%) 증가한 656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0~1세, 114천명이며,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월 10만원이다.

보육부문 중 예산 삭감 사업은 보육시설기능보강과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보육시설기능보강은 전년 본예산 211억원 대비 117억원(55.4%)감소한 9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보육시설확충은 132억원에서 339.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환경개선비지원도 600개소 76.57억원에서 567개소 57.6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7) 가족 및 여성

'10년도 가족 및 여성 예산은 '09년 본예산(1,196억원) 대비 527억원(79.8%) 감소한 669억원이나, 이는 사업이 기타 기금 등으로 이관됨에 기인한 바가 커서 실질적인 예산의 삭감이라 보기 어렵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사업(506억원),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1억8천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4억 7천만원)등이 복권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운영,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및 모성건강지원 환경 조성사업 역시 모두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들 중 아이돌봄미 지원사업은 '09년

표 11. 보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1,710,430	1,710,430	2,087,609	377,179 (22.1%)	377,179 (22.1%)
보육돌봄서비스 등	339,883	339,883	349,528	9,645 (2.8%)	9,645 (2.8%)
영유아보육료지원	1,282,168	1,282,168	1,632,204	350,036 (27.3%)	350,036 (27.3%)
보육시설기능보강	21,147	21,147	9,438	△11,709 (△55.4%)	△11,709 (△55.4%)
보육인프라구축	16,348	16,348	12,281	△4,067 (△24.9%)	△4,067 (△24.9%)
보육시설평가인증	3,401	3,401	3,401	-	-
보육시설지원	15,093	15,093	15,093	-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2,390	32,390	65,664	33,274 (102.7%)	33,274 (102.7%)

156억원에서 추경시 225억원으로 확대되었다가 '10년에는 20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추경대비 2.4억원 감소한 것은 주로 일시·긴급 돌봄서비스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반면 영아정기돌봄서비스는 신규로 도입되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총합하였고, 지원대상이 전년 58,698명에서 '10년 55,763명으로 줄어들었다.

8) 사회복지일반 지원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09년 본예산(3,768억원) 대비 660억원(17.5%) 증가한 4,429억원이

다.⁷⁾ 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63억원, 45.7%) 증가와 사회복지제도도입(264억원, 428.8%)에서 두드러진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09년 추경예산(1,289억원) 대비 131억원(10.2%)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95억원, 7.9%)와 민간경상보조(33억, 45.8%) 감소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종료에 기인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감소(82억원, 31%)중에서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감소(54억원, 90%)가 눈에 띄는데, '09년 보건복지콜센터 기능확대 구축(32억원)과 시군구 콜센터 설치

7) '09년 추경예산(6,324억원) 대비 510억원(36.8%) 증가하였다.

표 12.가족 및 여성 예산안 현황세사업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119,613	127,886	66,872	△52,741 (△79.8%)	△61,014 (△47.7%)
가족기능강화		77,447	85,719	35,563	△41,884 (△54.1%)	△50,157 (△58.5%)
	한부모가족지원	53,931	53,931	3,620	△50,311 (△93.3%)	△50,311 (△93.3%)
	가족친화환경 조성	904	904	1,008	104 (11.5%)	104 (11.5%)
	아동양육지원	15,644	22,540	20,147	4,503 (28.8%)	△2,393 (△10.6%)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5,828	6,125	8,276	2,448 (42%)	2,151 (35.1%)
	건강가정 지원	181	181	-	△181 (순감)	△181 (순감)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485	485	2,512	2,027 (417.9%)	2,027 (417.9%)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473	1553	-	△473 (순감)	△1,553 (순감)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42,166	42,167	31,309	△10,857 (△25.7%)	△10,857 (△25.7%)
	산모신생아도우미	25,776	25,776	24,485	△1,291 (△5.0%)	△1,291 (△5.0%)
	모자보건사업	12,335	12,335	-	△12,335 (순감)	△12,335 (순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일반)	724	724	693	△31 (△4.3%)	△31 (△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관리	3,332	3,332	6,131	2,799 (84%)	2,799 (84%)

(11억원) 사업 완료로 해당예산이 삭감되었다. 일반보건복지행정 지원 중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응급의료기금으

로 이관되면서 '노인돌보미사업'에 통합되어 예산이 삭감되었다.

표 13. 사회복지일반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376,851	632,490	442,895	66,044 (17.5%)	△189,594 (△30.0%)
사회복지기반조성		138,573	394,061	189,582	51,010 (36.8%)	△204,478 (△51.9%)
	사회복지사업지원	17,117	217,117	12,001	△5,116 (△29.9%)	△205,116 (△94.5%)
	복지사업평가	5,624	5,624	6,498	874 (15.5%)	874 (15.5%)
	보건복지콜센터	3,520	3,520	4,261	741 (21.1%)	741 (2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9,462	128,950	115,793	36,331 (45.7%)	△13,157 (△10.2%)
	사회복무제도도입	6,171	6,171	32,630	26,459 (428.8%)	26,459 (428.8%)
	사회복지전달체계	26,679	32,679	18,399	△8,280 (△31%)	△14,280 (△43.7%)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238,279	238,429	253,313	15,034 (6.3%)	14,884 (6.2%)

9) 보건의료부문

보건 분야 예산의 규모는 '09년 본예산(8,415억원) 대비 120억원(1.43%) 증가한 8,536억원이다. 예산의 증가가 일어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지원(569억원, 130.6%), 보건산업육성(545억원, 180%) 및 생명과학연구지원(351억원, 34.3%) 사업부분이다.

생명과학연구지원은 '09년 본예산(1,020억원) 대비 351억원(34.3%) 증가한 1,37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생명과학연구지원 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1,371억원을 사용함으

로 충북 오송에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지원 부분의 예산은 '09년 본예산(436억원) 대비 1,006.5억원(130.6%) 증가하였다. 이는 H1N1 및 전염병 관리사업 및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오송 이전 연구시설·장비 인프라구축,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오송 이전과 같은 신규 사업의 도입에 기인한다. 질병관리본부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환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6,310% 증가한 55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감염병병원체 확인진단과 감염성질환 유행에

측사업을 실시하며 항바이러스제를 추가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산업육성부문의 예산은 전년 본예산(302억원) 대비 545억원(180.1%) 증가한 847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1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감률을 차지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98억원, 1003.4%)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신규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41억원)과 그린코스메틱육성 인프라구축(40억원) 및 신소재·신기술 R&D 지원(60억원)의 도입도 예산증가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09년 본예산(1,654억원) 대비 536억원(32.4%) 감소하였다.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와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이 포함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50.4% 증가하여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육성(189억원, 42.2%), 지방대병원 특화·육성(322억원, 31.5%)의 예산 감소와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

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편성된 예산 감소는 지역별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의 입지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저해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대병원 특화·육성(322억원, 31.5%)의 예산 감소는 노인보건의료센터 사업의 종료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 치료실,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관리센터가 응급의료기금으로의 이관 된 것으로,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을 위한 지출의 감소라 보기는 어렵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09년 본예산(1,751억원) 대비 400억원(22.9%) 감소한 1,35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중 취약계층의료지원(446억원, 27.6%)의 감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취약계층의료지원의 예산 감소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장애인 지원-장애인보장구구입 지원 예산과 통합되어 저소득장애인 지원-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06억원의 감소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표 14. 보건의료부문 예산

(단위: 백만원)

부문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총계		841,593	841,593	853,642	12,049 (1.43%)	12,049 (1.43%)
1. 공공보건의료확충		165,481	174,580	111,835	△53,646 (△32.4%)	△62,746 (△37.9%)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지원	3,717	3,717	9,308	5,591 (150.4%)	5,591 (150.4%)

<표 14> 계속

부문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313	313	325	12 (3.8%)	12 (3.8%)
	지방의료원등 육성	44,818	44,818	25,912	△18,906 (△42.2%)	△18,906 (△42.2%)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102,554	102,554	70,290	△32,264 (△31.5%)	△32,264 (△31.5%)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14,079	14,079	-	△14,079 (순감)	△14,079 (순감)
2.	보건산업육성	30,275	37,005	84,787	54,512 (180.1%)	47,782 (15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원(R&D)	9,975	9,975	13,129	3,154 (31.6%)	3,154 (31.6%)
	보건산업육성지원	17,764	17,764	70,138	52,374 (294.8%)	52,374 (294.8%)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1,085	1,085	1,521	436 (40.2%)	436 (40.2%)
3.	생명과학연구지원	102,049	102,049	137,168	35,119 (34.4%)	35,119 (34.4%)
4.	한의학 연구 및 정책개발	29,378	29,378	9,717	△19,661 (△66.9%)	△19,661 (△66.9%)
5.	국민건강 생활실천	150	150	730	580 (386.7%)	580 (386.7%)
6.	암 및 희귀질환 지원	49,196	49,196	49,755	599 (1.1%)	599 (1.1%)
7.	정신질환 관리	6,794	6,794	3,442	△3,352 (△49.3%)	△3,352 (△49.3%)
8.	구강보건사업지원	590	590	1,440	850 (144.1%)	850 (144.1%)
	치과의료체계화	590	590	1,440	850 (144.1%)	850 (144.1%)
	치과의료기관평가	90	90	190	100 (111.1%)	100 (111.1%)
	장애인구강진료 센터	500	500	1,250	750 (150%)	750 (150%)

〈표 14〉 계속

부문	세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9.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75,110	175,110	135,070	△40,040 (△22.9%)	△40,040 (△22.9%)
	전공의수련지원	2,137	2,137	1,920	△217 (△10.2%)	△217 (△10.2%)
	국가시험원운영	1,076	1,076	960	△116 (10.8%)	△116 (10.8%)
	보건의료체계화	2,306	2,306	4,219	1,913 (83%)	1,913 (8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7,044	7,044	9,129	2,085 (29.6%)	2,085 (29.6%)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6,900	6,900	-	△6,900 (순감)	△6,900 (순감)
	신의료기술평가	623	623	1,612	989 (158.7%)	989 (158.7%)
	취약계층의료지원	161,924	161,924	117,230	△44,694 (△27.6%)	△44,694 (△27.6%)
10. 소록도 병원 지원		8,716	8,716	8,087	△629 (△7.2%)	△629 (△7.2%)
11. 질병관리본부지원		43,653	132,553	100,652	56,999 (130.6%)	△31,901 (△73.1%)
12. 기타		230,201	94,026	210,959	△19,242 (△8.3%)	116,933 (124.3%)

10) 건강보험

건강보험부문 예산은 '09년 본예산(4.1조원) 대비 1,418억원(3.4%) 증가한 4조 3,196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약 2조 7천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에 따라 이의 14% 지원분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이 '10년 과징금 예상세입액 107억원의 50%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기

금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10년 지출은 전년대비 368억원 증가한 1.06조원이다.

4. 결언 및 정책제언

2010년 재정지출 중 보건복지지출은 역대 가장 높은 재원배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분야 지출은 대부분이 법정지출

표 15. 국민건강보험부문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사업	세부사업	'09 예산	'09 추경예산	'10 예산안	증감액(증감율: 본예산 대비)	증감액(증감율: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총계		4,177,719	4,177,719	4,319,552	141,833 (3.4%)	141,833 (3.4%)
건강보험지원		3,657,230	3,657,230	3,798,736	141,506 (3.9%)	141,506 (3.9%)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656,585	3,656,585	3,798,385	141,800 (3.9%)	141,800 (3.9%)
	보험정책 사업관리	187	187	144	△43 (△23.0%)	△43 (△23.0%)
	독립적 검토 절차 지원	221	221	200	△21 (△9.5%)	△21 (△9.5%)
	건강보험심판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237	237	7	△231 (△97%)	△231 (△97%)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	520,221	520,221	520,574	353 (0.1%)	353 (0.1%)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520,221	520,221	520,574	353 (0.1%)	353 (0.1%)
	사회보험징수 통합	268	268	242	△26 (△10.0%)	△26 (△10.0%)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268	268	242	△26 (△10.0%)	△26 (△10.0%)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지원	1,026,246	1,026,246	1,063,062	36,816 (3.6%)	36,816 (3.6%)
	합 계	5,203,965	5,203,965	5,382,614	178,649 (3.4%)	178,649 (3.4%)

로 향후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하방경직성이 있고, 한번 확대된 사업은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보건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지출은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왔는데, 당분간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예산의 양적측면에서의 증가가 고품화저출산의 심화와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 취약계층의 증가 등 보건복지환경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 분야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이 향후 효율적 재정운용의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